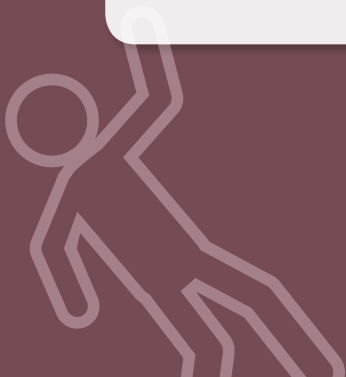


더 이상 과로사는
NO!

과로사 어떻게
막을 수 있나?





최근
우체국 집배원, 게임회사 직원,
버스운전기사 등의 **과로**로
추정되는 재해가
다발하고 있다.





주당 근로시간을 **52시간으로**
제한하고, 근로시간 특례업종을
대폭 축소하는 근로기준법이
시행('18.7.1)됐음에도 여전히
취약계층은 존재한다.

따라서 **과로**로 인한
신체적·정신적 건강장해로부터
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
입법 방안 마련과 이에 대한
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.

일본은 2014년
「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」을 시행해
매년 과로사 백서를 출간하고, 역학연구
및 교육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.



연구진들은
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국내에
적용할 수 있는 **과로사 예방**
정책을 제안하고자 연구를
실시했다.



일본 현지조사 결과,
교육과 상담뿐만 아니라
과로사를 방지할 지도감독을
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
발견했다.





또한 **법정노동시간**은
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고
있다는 점에서 노동시간에 대한
규제의 포괄범위가 한국보다 더
넓음을 발견했다.





연구자들은
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
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부하에
개입을 할 수 있는 **산업안전보건법의**
개정, 지도 감독제도 개선 등
방안을 제안하였다.

출처

과로사(과로자살)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(2)
(산업안전보건연구원, 2018)

※ 본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